

오늘은 한우리교회 5대 비전 중 4번째 'Connect with Christ's body'(교제)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33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표제어가 붙어있는 15편의 시 중 하나이며,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며 불렀던 노래들입니다. 그 중, 오늘 본문 시편 133편은 믿음의 형제들과의 교제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에 대해 노래합니다. 다윗은 두개의 감탄사로 시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즐거운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즐겁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는 무엇일까요?

첫째, 화해와 하나됨의 교제입니다.

단순히 성도의 교제가 보기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연합하여 교제하는 것이 아름답고 즐겁다고 이야기 합니다.(1절)

하나님은 성도의 하나됨을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보십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다가 처음으로 "좋지 않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또 창세기 1장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심히 보기 좋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를 축복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교제입니다.

본문 2절에 성도의 교제를 아론이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장면으로 비유합니다. 기름 부음은 상대방을 축복하며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았던 세 직분이 있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기름을 부었던 이유는 상대방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셋째, 서로에게 생명을 주는 교제입니다.

아름답고 즐거운 성도간의 교제는 3절에 혈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혈몬산의 눈과 이슬은 온 이스라엘의 호수와 강으로 흘러 내려,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고 아름다운 교제는 서로에게 생명을 주는 교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나눔으로 영혼에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우리는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성도가 하나 되어,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는 교제가 하나님의 복자체이고, 천국이라고 고백합니다.(3절 하반부) 우리 한우리교회 공동체가 함께 예배함으로, 각 목장과 부서에서 서로 교제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공동체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암송

이번 주 외울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브리서 10:24-25)

통독

이번 주 성경 통독

5/10(월)	5/11(화)	5/12(수)	5/13(목)	5/14(금)	5/15(토)	5/16(주일)
왕상22-왕하1	왕하2-4장	왕하5-6장	왕하7-9장	왕하10-12장	왕하13-14장	왕하15-17장

QT

이번 주 QT 말씀

5/10(월)	5/11(화)	5/12(수)	5/13(목)	5/14(금)	5/15(토)	5/16(주일)
출 15:13-21	출 15:22-27	출 16:1-10	출 16:11-20	출 16:21-36	출 17:1-7	출 17:8-16

나눔

목장 나눔 문제

1.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것, 혹은 은혜 받은 것이 있으면 나누어 주세요.
2. 교회 안에 믿음의 교제를 통해 받은 축복과 은혜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주세요.
3. 목장이 하나되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생명을 주는 교제의 장이 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가지씩 나누어 주세요.